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축으로서의 자부심과 마음의 짐

글_홍영태(비즈니스북스 대표)

1997년 봄이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출판계 선배와 모처럼 자리를 함께했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부터 꺼냈다.

“형, 보통 일이 아니야. 큰일이 일어날 징조라니까!”

나는 지난 30여 년 동안 외연적 성장을 추구해 온 한국경제가 드디어 그 한계를 드러내면서 한바탕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칠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다.

제한적이긴 했지만 국내 언론들도 1996년 말부터 외국 경제 전문가들의 경고를 전하기 시작했다. 1997년 봄에 접어들자 국내 연구소와 경제 전문가들도 조심스럽게 어두운 전망을 피력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동안 모아 놓은 신문 스크랩을 가방에서 꺼내 읽으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폴 크루크만 교수의 독설이 특히 마음에 와 닿았다. 과도한 외채와 각종 특혜 위에 이룩한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낙관적 전망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나는 말을 이어나갔다.

“아마 우리가 한번도 보지 못한 큰 장이 설거야.”

우리는 즉시 비슷한 사례를 찾기 시작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과 비슷하지 않겠느냐에 의견이 모였다. 공리는 공리를 낳았다.

“실업자들이 거리에 넘쳐나겠지. 사람들은 저마다 살기 위해 몸부림칠 거야. 아마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보다 더할 걸? 사회적으로도 복고풍이 넘쳐나고, 소설이나 미소설에서는 ‘퇴행적인’ 경향이 두드러지겠지. 마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이 낭만적이거나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책이 크게 유행할 걸?”

우리는 자연스럽게 경제경영서로 화제를 옮겨갔다. 경영 혁신서와 창업 책이 유망하다는 데 자연스럽게 의견이 모아졌다!

“3저 호황이 문제였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맞은 천재일우의 기회였는데 말이야. 그때 철저하게 개혁했어야 했어. 무역수지 흑자가 얼마였냐고! 너무 일찍 삼페인을 터뜨렸어.”

이제 우리는 우국지사가 되어 술잔을 기울였다.

“1990년대 초반에도 기회는 있었지. 삼성 등 대기업에서

보다 철저한 자기개혁 의지만 있었어도…”

“정부도 문제야.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비전이 없어. 그제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닥치는 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우리는 다가올 경제적 파국과 우리가 맞이할 기회에 대한 기대로 몸서리를 쳤다. 이번 기회에 한번 큰 책을 기획해 보자는 다짐과 함께.

“그런데 형,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뭐가 는 해야 할거야. 뭐니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음식 장사가 최고 아닌가?”

“맞아. 음식 장사는 망하기 어려우니까. 세상에 먹고 살지 않는 사람도 있나?”

우리는 나름대로 방향을 잡았다. 방향은 두 갈래! 경영 혁신서와 소자본 창업 책이 답이다!

“너는 이론서에 강하니까 경영 혁신서를 해봐. 나는 아무래도 그쪽은 자신이 없어. 나는 장사 책이나 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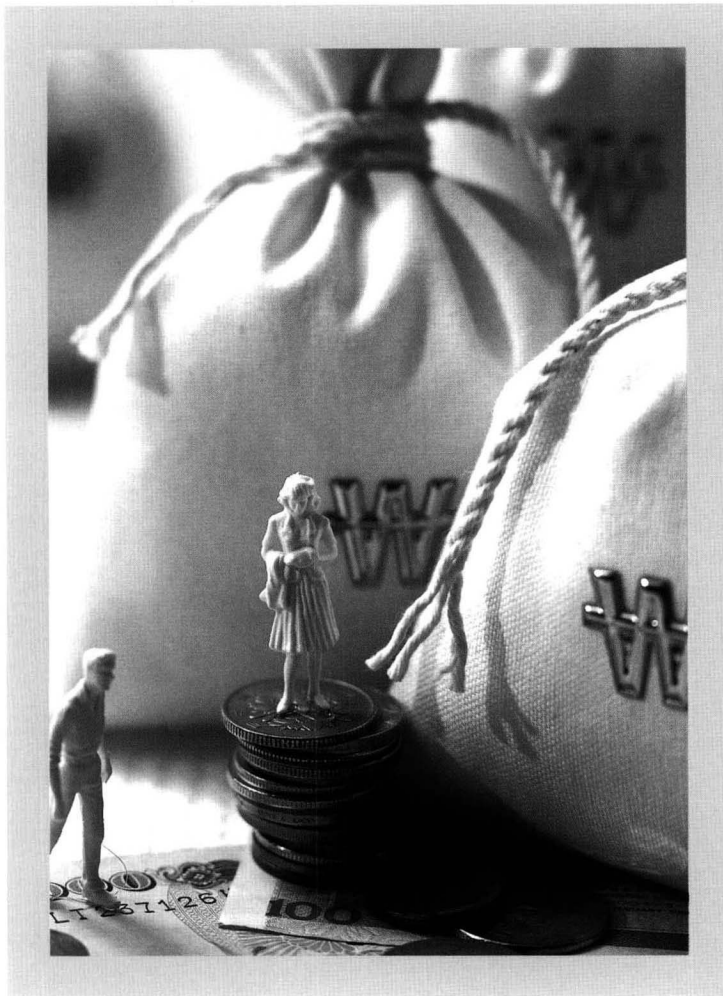
1년 후 결과가 나왔다. 1997년 말 우리나라는 IMF 관리 체제로 넘어갔다. 경영 혁신서로 방향을 잡은 나는 참패하고, 장사 책으로 방향을 잡은 그 선배는 수십만 부의 대박을 터뜨렸다.

내가 참패한 까닭은 다가올 경제위기를 너무 쉽게 생각한 때문이었다. 기업들은 대재앙에 가까운 위기 속에서 정신을 차릴 겨를이 없었다. 생존 자체가 문제였던 시절 그들에게 경영혁신과 같은 주제는 사치스러운 것이었다.

그 밤을 지새우며 얘기에 여념이 없었던 우리는 집에 들어가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궁리하면서 헤어졌다.

이처럼 경제경영서 편집자란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 중의 하나이다. 경제경영서의 모습에는 우리 경제의 영광과 실패가 정확하게 투영된다.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 과제, 세계 경제 속에서의 우리 위치 등이 가감 없이 드러난다.

때론 엉뚱한 장소에서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지만, 경제경



영서 편집자는 마치 자신이 우리 경제의 주역이 되어 있는 듯한 환상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그만큼 업무 자체가 도전적이다! 세계 경제를 움직일 새로운 트렌드를 소개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 고민한다.

경제경영서 편집자에겐 경제신문을 통해 전해지는 미국 뉴욕의 증시 소식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새로운 정책이 마치 옆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다. 그들에겐 유럽연합, 일본, 중국 경제의 동향이 어떤지가 그리 낯선 일이 아니다. 수출 주도형 경제체제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해외동향이란 특히 '사활'이 달린 일이다.

또한 경제경영서 편집자는 우리 경제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야 할 것인지 고민하기도 한다.

살아 있는 생물이라는 경제동향에 따라 적절한 재테크 기법과 자기계발 방향은 어떤 것인지 항상 모색한다. 돈과 직장 생활의 애환에서 자유로운 이 세상 사람은 없으니 얼마나 개발한 책이 많은가에 한 가닥 위안을 삼으면서 말이다(자신의 삶은 그럴 듯하게 꾸려가지 못하지만!).

지난 10여 년 간 경제경영서 편집자로 일해 오면서 베스트셀러도 많이 내어봤고, 나름대로 보람찬 순간도 많았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높다든 시어스타워 98층에서 있었던 파티에서 잭 웰치 회장과 만나 얘기를 나누었던 2001년 시카고의 여름밤은 잊을 수 없는 추억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나의 마음 속에는 짐이 항상 있다.

첫 번째 짐은 우리 경제 주역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아직 첨예한 대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 때문이라고 위안을 삼고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다.

두 번째 짐은 경제경영서가 혹시 자본주의의 긍정적인 면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짐은 우리의 눈으로 경제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부담이다. 이는 어떤 출판분야도 마찬가지겠으나, 우리 경제가 세계의 주역이 되는 날을 꿈꾸며 나는 미래를 기다릴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경영서의 문제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경제경영서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의 기간 동안 점차적으로 경제경영서 출판 여건이 호전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에 희망을 걸며 한국 경제경영서 출판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